

# 2011.4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1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1.4.27	대전MBC 대회의실	7/11	6	

○시청자위원 불참자(4명) 명단: 여운철, 김진국, 안정선, 김경숙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사업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서영석 보도국장, 김경환 기술국장, 이상현 전략기획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9	5	-	1	15	-	15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7	7	1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0건	0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시사플러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잘 다뤘다. 운전자, 아이들의 안전의식 일깨워줘 고맙게 생각한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지속적인 계도 부탁한다.(김경옥위원)	향후에도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다루도록 하겠다. 5월에도 어린이 관련 아이টে을 준비하고 있다.	편성 의견참고
기타	대전MBC의 신입사원채용은 가능성 있는 인재 뽑는 기회 되어야 한다.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인재를 우선채용하는 게 바람직해보인다.(김재영위원)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좋은 인재가 선발되도록 채용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영 의견참고
보도	뉴스도 사전기획이 뒷받침되면 좋겠다. 단신으로 다룬 화학연구원의 ‘연구과제도 오디션’이나 ‘민선지자체 정책연속성’ 등 심층취재보도로 전국적 화제로 끌어낼 수 있는 소재들이 많다. 뉴스가치에 따라 뉴스길을 탄력적으로 하고 단순히 소식전하는 차원에서 탈피하면 좋겠다.(김재영위원)	사안에 따라 집중취재나 현장출동같은 기획보도에 주력하겠다. 현재 아이টে을 계속 개발중이다.	보도 수용
보도	부정적 뉴스가 많다. 긍정적이고 재밌는 뉴스를 많이 다뤄주면 좋겠다.(장인순위원장)	밝은 뉴스 따뜻한 뉴스 제작에 노력하고 있다.	보도 수용
보도	뉴스에서 사실전달도 좋지만 의견이 담겨졌으면 한다. 이슈에 대한 대전MBC의 의견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의견을 통해 사회 이슈화하고 사회를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신현대위원)	환경이나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해 대전mbc만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대전MBC가 대전 충청권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대전충청지역에 있는 명소와 명산 등 볼거리를 광범위하게 소개해 주면 좋겠다. 충청권의 자산인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끌어 올려달라..(신현대위원)	현재에도 ‘아침이 좋다’와 ‘TV 전국기행’ 등의 프로그램에서 충청지역의 명소와 볼거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대전, 충남지역의 아름다운 명소를 앞으로도 충분히 담아내도록 하겠다.	편성 수용
보도	대전문화재단의 소극장 공모사업관련해 일수신문에서 ‘~다더라’ 등 제보에 의존해 확인없이 다루는 사례가 있었다. 제보에 대해 언론이 신중해 주길 노파심에서 당부한다.(유치벽위원)	대전문화재단 보도는 저희들도 신중히 전달한 바 있다. 한쪽의 의견보다는 양쪽을 다 들어 보도에 신중을 기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교양	<시사플러스> '지자체축제 존폐위기'는 좀 더 깊게 다뤄주면 좋겠다. 축제문제를 들여다보면 자치단체장의 문제가 더 심하다. 진행자는 어눌한 것 보다 움직임이 어색하다. 프로그램진행도 연기가 필요하다. (유치벽위원)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장이 바뀌게되면 대표적인 행사를 치적사업과 연계해 바꾸고 있고 충분한 지역민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런 점을 반영하고 대안의 모색도 했다. 진행자의 모션에도 좀더 세심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뉴스에 나온 내용을 시청자들은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자는 객관적, 중립자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4/12 카이스트 사태보도에서 찬반인터뷰가 본질을 왜곡할 소지가 있었다. 균형있는 인터뷰와 기사작성이 아쉽다.(방기봉위원)	균형감각을 갖고 보도에 임하고 있다.	보도 반론
보도	카이스트 사태 보도는 팩트보다는 경마식 보도가 되어 아쉽다. 카이스트는 지역의 큰 자산이다. 좀더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김영광위원)	현재 카이스트 보도는 이성을 찾는 상태이고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인 냄비식 보도는 지양하고 있다.	보도 수용
보도	중앙에 송고된 주요뉴스를 로컬시간대에 다시 내보내는 중복편집을 피했으면 좋겠다. (김영광 위원)	시간대가 맞지 않아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중복편집을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다.	보도 수용
교양	봄이 되면 야외활동 많아지게 되는데 농촌에 도움되는 정보가 많이 제공되면 좋겠다. (김영광 위원)	아침이 좋다 및 라디오 특급작전 등에서 농번기 일손 관련 아이템을 발굴해 반영하도록 하겠다.	편성 수용
교양	프로그램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진행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겠다. 잘하는 진행자도 있지만 오랫동안 진행해 매너리즘에 빠진 진행자도 있다.(김영광위원)	개편회의에서 적극 반영해 중간 점검하고 평가와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카이스트 총장 퇴임요구 교수가 전체교수의 1/3인데 보도에선 퇴임희망 교수비율만 소개해 왜곡할 여지 있었다. 학생자살과 교수자살은 본질이 다른데 같은 것처럼 다뤄졌고, 학생도 자살이유가 다른데 같은 것처럼 비취졌다.(장인순 위원장)	카이스트 보도는 현재 차분하고 이성적인 보도를 견지하고 있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문제는 통합명분이 있으면 접근 가능한건데, 단지 본부를 어디에 둘건지 놓고 갈등이다. 언론이 통합이유 등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주면 좋겠다. (장인순 위원장)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의 통합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등 깊이는 보도에 주력하겠다.	보도 수용